

보육시설의 질적 기준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Mother's perception for the quality criteria of day care center

영남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박인전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안옥희

Dept. of Child Studies, Yeung Nam Univ.

Assistant prof.: In Jeon Park

Dept. of Home Management, Yeung Nam Univ.

Assistant prof.: Ok Hee An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선행연구 고찰	V. 논의 및 결론
III. 연구문제 및 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mother's perception for the quality criteria of day care center, and to estimate the differences of these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these purposes, the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568 mothers with children enrolled in day care center be located in Taegu.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F-test, Schéffe test,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

1. General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other's perception for the quality criteria of day care center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2.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mother's educational level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all domains of mother's perception for the quality criteria of day care center.

* 이 논문은 1994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I. 서론

정부는 최근 영유아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매년 「보육사업지침」을 발행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경제기획원에서는 「영유아보육사업의 확충계획('95-'97)」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보육사업의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부부 등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94년 현재 6,088곳인 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늘려 '97년에는 모두 13,678개소로 확충하기로 하였다. 보육시설이 그만큼 늘게 되면 당연히 보육아동 수용능력도 증가하게 되어 보육시설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수용총족율이 30%에서 95%로 높아질 전망이다(한겨레신문, 94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의 이와 같은 보육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시설부족으로 인해 보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친 양적 확대가 자칫 보육의 질을 떨어지게 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95년도 「보육사업지침」의 내용 중 보육사업 추진계획의 목표를 보면 보육사업의 양적 확충 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적 향상에도 역점을 두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을 조성하고 교육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질적 측면이 뒷받침되지 않는 양적 확장은 보육의 근본적인 목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육수요자의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의 제공이나 운영이 되지 않으면 미래의 보육시설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아동관련 연구들을 보면, 보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유아기가 성장과 발달의 변화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고 보호적 노력이나 교육적 시도의 효과가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로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므로 바람직한 경향으로 사료된다. 즉 저소득층의 결혼 아동이 질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경우 가정양육보다도 더 바람직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아도 보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아동이 질적인 수준이 보장되는 보육시설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부모 역시 안심할 수 있어 부모와 가족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의 보육시설 참여는 부모의 보육시설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보육의 질적 기준에 대한 부모의 생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의 부모들의 기준이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의 보육정책 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보육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기혼여성의 보육요구도나 보육시설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보육시설의 평가 및 질적 기준의 인식도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의 질적 기준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의 정도를 살펴보고, 나아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머니의 인식이 어떻게 다르며, 보육시설의 질적 기준의 각 영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정부의 보육정책과 보육시설 선택자인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시설의 설립·운영기준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최근들어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 자녀수의 감소, 생활수준 향상 및 여성의 경제적 자립욕구 향상, 생계비 상승 등으로 인해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에 따라 의식이 많이 변화하였고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해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부도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또한 아동의 조기교육에 대한 붐으로 인해 온종일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형태는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아동의 성장 및 발달단계에 적합한 보육 프로그램은 아동의 발달에 적합해야 하며 아울러 그에

맞는 내용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구성이 요구된다.

1. 보육의 질과 아동발달

보육의 질적 수준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좋은 질의 보육을 받은 아이는 언어나 인지적 기능 뿐만 아니라 사회적 능력면에서 뛰어나 사회적이고, 감정이입이 잘 되며 정서적으로 잘 적응하고 더 친사회적 반응을 보이며 또래와의 참여에 있어서도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Vandel et al., 1988).

그리고 보육의 질적 환경은 크게 인적 환경과 물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몇몇 연구들은 인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의 행동이 물리적 환경보다 더 큰 영향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집단의 크기와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아동의 놀이감 및 교구, 공간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에 비해 사회적 지식이나 행동과 더 관계가 깊다는 것으로 집단의 크기가 크면 아동은 반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일 뿐만 아니라 방관적인 놀이를 많이 하여 실제로 놀이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다른 아동을 관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였다(Clarke-Stewart & Fein, 1983).

한편 보육의 물리적 환경의 구성요소인 공간의 크기와 배치, 제공되어지는 활동의 다양성, 교구 및 장난감의 종류나 수량, 개인 공간의 제공 등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Espinosa(1980)는 나이에 적절하고 풍부한 장난감이 제공되는 곳에서 보육을 경험한 아동들이 더 협동적이고 구성적이며 적절히 놀이에 참여하고 갈등을 덜 겪는다고 하였고, Holloway 등(1988)도 이런 아동들이 친사회적인 반응을 더 많이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 교육적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보다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위하여 더 바람직하다(Johnson et al., 1980 ; Miller et al., 1975).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육의 질은 모든

측면에서 즉 훌륭한 자료와 교구, 적절한 공간, 알맞은 교사 대 아동의 비율, 반응적이고 민감한 교사의 행동과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야만 긍정적인 아동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2. 보육시설 선택시 질적 기준

보육시설 선택시 질적 기준에 대한 연구는 국외의 경우에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나 국내의 경우에는 많지 않다. 그리고 국외라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보육시설 선택시 질적 기준이라고 여기는 것을 살펴본 연구는 많은 반면에 부모를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 선택시 질적인 기준을 알아본 연구는 별로 없는 형편이다. The Association for Childhood Education International 이나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등과 같은 전문관련단체 들은 아동 보육 프로그램의 질적 요소로 (1) 면허 있는(licensed) 프로그램, (2) 집단 크기, (3) 교직원-아동의 적절한 비율, (4) 교직원-아동의 잦은 상호작용, (5) 잘 훈련된 양육자, (6) 발달상으로 적절한 활동 등을 들고 있다. 사실상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위해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부모 자신들의 가치관, 재정 형편, 가족구조에 따라 형태나 질에 있어서 다양한 보육을 선택하게 된다(Philips et al., 1987).

Golson(1977)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들은 질적인 보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서 시설의 질, 교육적인 분위기, 보호적인 질(custodian qualities), 부모참여, 비학업적인 분위기, 보육정책과 규정, 교직원의 인성 및 자질, 방문 등을 지적하였다. Turner 와 Smith(1983)는 어린 자녀가 있는 편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이들은 보육시설 선택시 보육교사의 자질, 청결, 프로그램 내용, 위치, 교직원 훈련, 보육 비용, 등록된 아동의 수, 운영시간, 이용 가능한 공간의 순서대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Bogat 와 Gensheimer(198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들은 보육시설 선택시 제공자의 자질 및 경험, 편리함과 우호적인 분위기, 영양, 교육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보육시설의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Fuqua 와 Labensohn(1986)은 보육시설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안전과 건강, 발달적으로 적합한 교과과정, 교직원의 자질, 유사한 아동양육신념, 학교준비 프로그램이었으며 또한 가정/직장과의 가까움, 비용, 운영시간도 보육시설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지적하였다.

Ⅲ.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설정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시설의 질적 기준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보육시설의 질적 기준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보육시설의 질적 기준에 대한 어머니 인식도의 각 영역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로 사용된 질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관한 문항과 보육시설의 질적 기준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와 연구자가 영향력이 있으리라 예측한 변수들로 구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부모의 연령, 가족수, 자녀수, 가족형태, 부모의 학력, 결혼지속년수, 월소득, 부의 직업, 모의 직업유무, 취업모의 취업시기 등이다.

보육시설의 질적 기준에 대해 어머니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는 Stroud(1988)의 “아동보육을 선택할 때 선택되는 질적 기

준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조사”라는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구성은 다음의 7개 영역 즉 ① 교직원의 자격 ② 경영-평가 ③ 교직원-부모/교직원-아동의 상호작용 ④ 교육과정 ⑤ 교사진 ⑥ 물리적 환경 ⑦ 영양공급, 건강과 안전이다. 각 영역은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로 5점 Likert식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며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에 의거한 신뢰도 검증결과, Chronbach's α 는 .615에서 .775사이에 분포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대구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어머니로서 20~30대 주부 568명이다. 본 연구에서 주부의 연령을 20, 30대로 제한한 이유는 가족생활주기에 있어서 미취학기 아동을 둔 주부의 연령이 대체로 20대 후반과 30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1994년 10월 25일부터 3일간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일부 수정·보완한 질문지로 1994년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에 걸쳐 본조사가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F-test 및 사후검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해석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63~568)

변인	구분	빈도	%	변인	구분	빈도	%	
가족 수	3명 이하	192	33.8	변인	결혼	194	35.4	
	4명	281	49.5		5년 이하	188	34.3	
	5명 이상	95	16.7		6~7년	166	30.3	
자녀 수	1명	219	38.6	구분	일반노동자, 농·축산업	52	10.4	
	2명	320	56.4		상업, 외판원	147	29.3	
	3명 이상	28	4.9		일반공무원, 회사원	218	43.5	
가족 형태	핵가족	480	84.5	변인	취업모의 취업시기	출산전	160	60.8
	확대가족	88	15.5		출산후1-3년	54	20.5	
					출산후4년이상	49	18.6	

1) 각 항목의 빈도차는 결측값에 의한 것임

(표 2) 보육시설의 질적 기준에 대한 어머니 인식의 일반적 경향

영역및기준	M (SD)	구분	M (SD)	영역및기준	M (SD)	구분	M (SD)
교직원의 자격(A)	2.72 (.32)	경영 평가(B)	2.59 (.35)	교직원 부모/교직원 아동의 상호작용(C)	2.67 (.31)	교육과정(D)	교사진행(E)
유아교육 및 아동발달에 대한 훈련(A ₁)	2.79 (.50)	보육시설의 방침(B ₁)	2.75 (.50)	아동과 갖은 상호작용(C ₁)	2.86 (.40)	프로그램 목적이 반영된 교육활동(D ₁)	한집단내외 아동수(E ₁)
유아교육환경(A ₂)	2.84 (.43)	사고 및 재해보험 가입(B ₂)	2.75 (.52)	아동들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함(C ₂)	2.84 (.32)	아동들의 흥미에 따른 활동계획 수립(D ₂)	교육과정의 융통성있는 집단의 크기(E ₂)
장기적인 교육기회(A ₃)	2.82 (.45)	지역사회 자원활용(B ₃)	2.47 (.67)	아동들 체질적 자질을 고려함(C ₃)	2.69 (.69)	특정한 요구가 있는 아동들 위한 배려(D ₃)	아동은 항상 교사의 관심에 있어야 함(E ₃)
교육자료를 결합 기회(A ₄)	2.77 (.48)	교사별 위한 공간필요(B ₄)	2.31 (.73)	아동들 존중하고 부모의 방문을 환영함(C ₄)	2.86 (.30)	건설적인 인연계획표 구성(D ₄)	개별적 접촉에 충분한 수의 교사 확보(E ₄)
교직원 자격에 대한 기록비치(A ₅)	2.52 (.66)	프로그램평가(B ₅)	2.47 (.67)	부모-교사회의(C ₅)	2.41 (.72)	활동진행에 있어서의 자율성(D ₅)	측시 보장과기에 충분한 수의 교사 확보(E ₅)
원장의 경영화에 대한 교육 필요성(A ₆)	2.55 (.65)	아동발달에 대한 기록(B ₆)	2.76 (.51)	부모-교사회의(C ₆)	2.65 (.57)	아동의 활동참여에 대한 자율성(D ₆)	2.19 아동집단에 대한 교직원의 책임(E ₆)
영역및기준	M (SD)	구분	M (SD)	영역및기준	M (SD)	구분	M (SD)
영양공급, 건강과 안전(G)	2.65 (.34)	영양및기준	2.73 (.30)	아동수 확보 및 개인공간	2.68 (.55)	아동이 될 수 있는 개인공간 필요(F)	2.37 (.68)
임과 종료 후 아동 책임자 동반귀가(G ₁)	2.64 (.41)	아동수 확보 및 개인공간	2.61 (.60)	아동은 항상 교사의 관심에 있어야 함(E ₂)	2.53 (.63)	부드러운 특성의 소품제공(F ₂)	2.46 (.70)
아동학대 의혹시 관계기관에 보고(G ₂)	2.74 (.49)	융통성있는 집단의 크기(E ₂)	2.61 (.53)	아동들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함(C ₂)	2.83 (.63)	수의 교사 확보(E ₄)	2.81 (.43)
몸·화장실 등이 아동주변에 있을 것(G ₃)	2.70 (.53)	아동은 항상 교사의 관심에 있어야 함(E ₃)	2.61 (.53)	아동들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함(C ₂)	2.83 (.63)	수의 교사 확보(E ₄)	2.81 (.43)
부모에게 식단 공개(G ₄)	2.46 (.68)	개별적 접촉에 충분한 수의 교사 확보(E ₄)	2.63 (.59)	아동들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함(C ₂)	2.83 (.63)	수의 교사 확보(E ₄)	2.46 (.68)
혼자 식사하도록 격려함(G ₅)	2.46 (.70)	측시 보장과기에 충분한 수의 교사 확보(E ₅)	2.63 (.59)	아동들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함(C ₂)	2.83 (.63)	수의 교사 확보(E ₄)	2.86 (.39)
다양한 음식 제공(G ₆)	2.77 (.52)	부모-교사회의(C ₅)	2.76 (.51)	부모-교사회의(C ₅)	2.41 (.72)	아동의 활동참여에 대한 자율성(D ₆)	2.87 (.37)

2. 보육시설의 질적 기준에 대한 어머니 인식의 일 반적 경향

보육시설의 질적 기준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정도가 각 영역별로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7개 영역 모두에서 인식 정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7개 영역 중에서는 집단의 크기 및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의미하는 교사진 영역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교직원의 자격, 교직원-부모/교직원-아동의 상호작용 순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보면, 교직원의 자격(A) 영역 중에서는 A₂(유아교육전공)기준이 가장 높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책임자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A₃(정규적인 교육) 기준으로서 교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경영-평가(B) 영역에는 B₆(아동발달에 대한 기록) 기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 아동들의 발달에 대한 기록은 어린이들이 개별적인 학습활동을 계획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교직원-부모/교직원-아동의 상호작용(C) 영역에 있어서는 C₁(아동과 잦은 상호작용)과 C₄(아동을 격려함) 기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 교직원은 미소짓기, 안아주기, 접촉하기, 말걸기 등과 같이 아동과 자주 상호작용을 하여야 하며, 아동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말하도록 격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높게 인식하였다. 또한 아동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C₂)는 점도 중요하게 지각하였다.

교육과정(D) 영역중에서 D₁(균형있는 일일계획표 구성) 기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일일계획표는 여러 가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계획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한편 D₆(아동의 활동참여에 대한 자율성) 기준이 다른 기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 활동참여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교사진(E) 영역에서는 E₁(한 집단내의 아동수) 기준이 가장 높아 한 집단내의 아동들의 수는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여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E₄(개별적 접촉에 충분한 수의 교사 확보)와 E₆(즉시 보살피기에 충분한 수의 교사 확보) 기준도 비교적 높아 아동들과 개별적인 접촉을 자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이 필요로 할 때 즉시 보살펴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의 교사가 있어야 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물리적 환경(F) 영역 중에서 F₁(실내·외 환경이 좋을 것) 기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 실내·실외 환경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매력적이고 넓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각하였다.

영양공급, 건강과 안전(G) 영역에서는 G₆(다양한 음식제공), G₅(혼자 식사하도록 격려함) 기준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 아동들에게 다양한 음식들이 제공되어야 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먹도록 격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보육시설의 질적 기준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도

(1) 교직원의 자격(A) 영역

교직원의 자격 영역에 대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모의 학력(P<.001), 부의 학력(P<.001), 취업모의 취업시기(P<.01), 부의 연령(P<.05), 자녀수(P<.05), 월수입(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하위 영역별로 보면, A₁(유아교육 및 아동발달에 대한 훈련) 기준에서는 모의 학력(P<.001), 부의 학력(P<.001), 월수입(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나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고졸이거나 대졸 이상인 경우가 중졸 이하보다, 그리고 월소득이 151만원 이상인 경우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교직원은 만18세 이상이며, 유아교육 및 아동발달에 대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교직원 의 자격(A 영역)

변인	구분	N	A			A ₁			A ₂			A ₃			A ₄			A ₅			A ₆		
			M	F값	Scheffe	M	F값	Scheffe	M	F값	Scheffe	M	F값	Scheffe	M	F값	Scheffe	M	F값	Scheffe	M	F값	Scheffe
부의 연령	34 세 이전	305	2.73	4.22*		2.81	1.01		2.82	.94		2.85	2.36		2.79	3.66*		2.57	2.84		2.59	3.34	
	35 세 이후	244	2.68			2.77		2.85		2.79		2.82			2.70			2.47			2.49		
	3 명 이하	192	2.70			2.79	.03	2.78	2.82		2.85	3.02*		2.74			2.56	4.16**		2.53			
가족수	4 명	281	2.73	1.47		2.78		2.83	2.72		2.72			2.80			2.34			2.52			
	5 명 이상	95	2.66			2.78		2.83		2.72				2.80			2.34			2.52			
	5 년 이하	194	2.72			2.82		2.82		2.85				2.81			2.53			2.51			
결혼처속년수	6 - 7 년	188	2.72	1.53		2.78	1.24	2.86	.83		2.80	.77		2.76	4.40**		2.56	1.60		2.55	.43		
	8 년 이상	166	2.67			2.74		2.80		2.80				2.66			2.44			2.58			
	1 명	219	2.70			2.80		2.79		2.80				2.74			2.53			2.55			
차녀수	2 명	320	2.73	3.64*		2.78	.71	2.88	5.18**		2.84	2.52		2.77	1.11		2.54	2.31		2.56	.13		
	3 명 이상	28	2.55			2.68		2.64		2.65				2.64			2.26			2.50			
	1 명	56	2.58			2.54		2.68		2.57				2.55			2.43			2.71			
모의 학력	중졸 이하	320	2.69	9.29***		2.78	9.46***	2.81	6.20**		2.83	10.33***		2.75	7.79***		2.49	2.88*		2.51	2.36		
	고졸	186	2.78			2.87		2.90		2.88				2.84			2.62			2.57			
	대졸 이상	27	2.47			2.41		2.63		2.52				2.41			2.26			2.59			
부의 학력	중졸 이하	269	2.69	12.53***		2.76	10.83***	2.82	3.66*		2.78	11.18***		2.74	10.08***		2.50	3.85*		2.55	.06		
	고졸	262	2.76			2.86		2.86		2.89				2.82			2.59			2.55			
	대졸 이상	223	2.67			2.74		2.77		2.75				2.70			2.45			2.57			
월수입	100 만 원 이하	219	2.72	3.77*		2.78	3.36*	2.83	5.59**		2.85	4.28**		2.78	2.35		2.58	1.97		2.51	.46		
	101 - 150 만 원	116	2.76			2.89		2.94		2.89				2.79			2.53			2.56			
	151 만 원 이상	294	2.69			2.76	1.51	2.79	5.50**		2.81	.04		2.77			2.49	1.22		2.50	2.38		
직업유무	무	209	2.73	2.46		2.82		2.89		2.82				2.75			2.56			2.59			
	유	52	2.63			2.65		2.73		2.71				2.73			2.45			2.58			
	임원노동자, 농·축산업 상업, 외판원	147	2.71	1.48		2.80	1.46	2.86	2.09		2.81	2.52*		2.74	.03		2.56	.46		2.50	.37		
부의 직업	일반공무원, 회사원	218	2.71			2.77		2.81		2.81				2.75			2.56			2.57			
	고급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84	2.74			2.83		2.90		2.92				2.75			2.52			2.52			
	출산 전	160	2.80			2.83		2.91		2.88				2.83			2.68			2.65			
취업모의 취업시기	출산 후 1 - 3 년	54	2.70	4.02**		2.80	.22	2.83	1.67		2.92	1.97		2.80	4.66**		2.38	4.51**		2.38	4.15**		
	출산 후 4 년 이후	49	2.68			2.78		2.82		2.82				2.59			2.52			2.64			

Scheffe : 서로 다른 문자간에는 유의차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A₂(유아교육전공) 기준에서는 자녀수(P<.01), 모의 학력(P<.01), 월수입(P<.01), 모의 직업유무(P<.01), 부의 학력(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A₃(정규적인 교육) 기준에서는 모의 학력(P<.001), 부의 학력(P<.001), 월수입(P<.01), 가족수(P<.05), 부의 직업(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A₄(교육 자료를 접할 기회) 기준에서는 모의 학력(P<.001), 부의 학력(P<.001), 결혼지속년수(P<.01), 취업모의 취업시기(P<.01), 부의 연령(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A₅(교직원 자격에 대한 기록비치) 기준에서는 가족수(P<.01), 취업모의 취업시기(P<.01), 모의 학력(P<.05), 부의 학력(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A₆(원장의 경영학에 대한 교육) 기준에서는 취업모의 취업시기(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취업모의 취업시기가 출산 전인 경우가 출산 후 1~3년인 경우보다 보육시설의 경영자는 경영학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2) 경영-평가(B) 영역

경영-평가 영역의 인식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모의 학력(P<.001), 부의 학력(P<.001), 가족수(P<.01), 월수입(P<.01), 자녀수(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하위 영역별로 보면, B₁(보육시설의 방침) 기준에서는 모의 학력(P<.01)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가 고졸인 경우보다 보육시설은 시간, 보육비용, 아동의 질병에 대처하는 방법, 보육비용 상환에 대한 정해진 방침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B₂(사고 및 재해보험 가입) 기준에서는 모의 학력(P<.01)과 부의 학력(P<.01)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가 고졸인 경우보다 아동과 성인을 위해 “사고 및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₃(지역사회 자

원활용) 기준에서는 가족수(P<.01), 자녀수(P<.01), 모의 학력(P<.01), 가족형태(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B₄(교사를 위한 공간 필요) 기준에서는 모의 학력(P<.05)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가 중졸 이하인 경우보다 교사는 하루일과 중 아이들과 떨어져 보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B₅(프로그램 평가) 기준에서는 모의 학력(P<.001), 부의 학력(P<.001), 월수입(P<.01), 가족수(P<.05), 가족형태(P<.05)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B₆(아동발달에 대한 기록) 기준에서는 모의 학력(P<.001), 자녀수(P<.01), 부의 학력(P<.01)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3) 교직원-부모/교직원-아동의 상호작용(C) 영역
교직원-부모/교직원-아동의 상호작용 영역의 인식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월수입(P<.001), 모의 학력(P<.001), 부의 학력(P<.001)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하위 영역별로 보면, C₁(아동과 잦은 상호작용) 기준에서는 부의 학력(P<.001)과 모의 학력(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부모의 학력이 고졸이거나 대졸 이상인 경우가 중졸 이하인 경우보다 교직원은 아동과 자주 상호작용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C₂(아동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함) 기준에서는 가족형태(P<.05)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확대가족이 핵가족인 경우보다 교직원은 아동의 성별,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차별없이 아동에 대하여 존중감을 갖고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C₃(아동을 체벌하지 않음) 기준에서는 모의 학력(P<.001), 부의 학력(P<.001), 월수입(P<.001), 취업모의 취업시기(P<.001), 결혼지속년수(P<.01), 가족수(P<.05), 가족형태(P<.05)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다른 기준에서보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C₄(아동을 격려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경영-평가(B 영역)

변인	구분	N	B ₁			B ₂			B ₃			B ₄			B ₅			B ₆		
			M	F값	Scheffe	M	F값	Scheffe	M	F값	Scheffe	M	F값	Scheffe	M	F값	Scheffe	M	F값	Scheffe
가족수	3명이하	191	2.52			2.79			2.55			2.39			2.52			2.75		
	4명	280	2.66			2.72	1.85		2.44	5.57**	a	2.26	1.72		2.45	3.57*	a	2.73		
	5명이상	94	2.49		b	2.66			2.26		b	2.29			2.30		b	2.73		
	1명	217	2.62		a	2.75	1.15		2.52	5.57**	a	2.38	1.81		2.49	1.22	a	2.78		a
	2명	320	2.55		b	2.70			2.43		b	2.29			2.29		b	2.73		b
가족형태	3명이상	27	2.46			2.79			2.07			2.31			2.47	3.74*		2.80		
	핵가족	478	2.59			2.74	3.49		2.47	5.22*		2.30	.02		2.32			2.73		1.27
모의 하력	중졸이하	87	2.51			2.64			2.29			2.30			2.32			2.80		
	고졸	54	2.45		a	2.68	4.34**		2.29	3.95**	a	2.15	3.53*		2.16		a	2.46		a
	대졸이상	320	2.54		b b	2.69			2.42		b	2.27			2.39	13.75***	b b	2.74		10.35***
부의 하력	중졸이하	185	2.68			2.83			2.55			2.41			2.63			2.82		
	고졸	27	2.54		a	2.81	2.14		2.33	1.11		2.36	1.85		2.26		a	2.52		a
	대졸이상	268	2.52		b	2.69			2.42		b	2.37			2.36	7.92***	b	2.79		b
월수입	100만원이하	222	2.52			2.74			2.38			2.22			2.35			2.69		
	101-150만원	218	2.59		a	2.71	98		2.30	1.57		2.35	2.18		2.61	5.36**	a	2.74		1.93
	151만원이상	115	2.64		b	2.73			2.46			2.37			2.61		b	2.81		

Scheffe : 서로 다른 문자간에는 유의차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교직원부모/교직원아동의 상호작용(C 영역)

변인	구분	N	C ₁			C ₂			C ₃			C ₄			C ₅			C ₆		
			M	F값	Scheffe	M	F값	Scheffe	M	F값	Scheffe	M	F값	Scheffe	M	F값	Scheffe	M	F값	Scheffe
가족수	3명이하	191	2.66			2.82			2.39			2.84			2.45			2.61		
	4명	280	2.64			2.81	.79		2.28			2.85	.25		2.36	1.21		2.68		.79
	5명이상	94	2.64			2.87			2.17			2.87			2.34			2.68		
	6-7년	193	2.67			2.85	2.09		2.38			2.88	1.03		2.40			2.62		
	8년이상	166	2.60			2.84			2.32			2.83			2.39	14		2.62		
가족형태	핵가족	479	2.65			2.81	5.02*		2.32			2.84	1.31		2.40			2.64		2.24
	확대가족	88	2.66			2.92			2.16			2.90			2.32			2.74		
	중졸이하	56	2.52			2.73			1.91			2.68	6.80***		2.30			2.75		
모의 학력	고졸	319	2.63			2.87	2.38		2.25			2.85			2.38			2.61		
	대졸이상	186	2.72			2.87			2.50			2.91			2.41			2.71		
	중졸이하	27	2.52			2.63			1.96			2.74	4.34**		2.33			2.74		
부의 학력	고졸	268	2.61			2.81	.93		2.20			2.81			2.33			2.62		
	대졸이상	262	2.70			2.85			2.43			2.90			2.44			2.68		
	중졸이하	27	2.52			2.63			1.96			2.74			2.33			2.74		
월수입	100만원이하	222	2.58			2.80	2.04		2.16			2.79	3.28		2.27			2.59		a
	101-150만원	219	2.65			2.80			2.32			2.80			2.40			2.65		
	151만원이상	116	2.76			2.90			2.49			2.89			2.56	6.17**	a	2.80		b
모의 직업유무	무	293	2.63			2.81	.55		2.28			2.84	1.79		2.44			2.58		
	유	209	2.68			2.87			2.33			2.88			2.44			2.73		7.93**
	출산전	159	2.72			2.88			2.46			2.89			2.48			2.71		
취업모의 취업시기	출산후 1-3년	54	2.68			2.94	2.44		2.13			2.89	.39		2.32			2.79		
	출산후 4년 이후	49	2.64			2.91			2.06			2.94			2.47			2.76		
	151만원이상	115	2.64			2.78			2.06			2.94			2.47			2.76		

Scheffe : 서로 다른 문자간에는 유의차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함) 기준에서는 모의 학력($P<.001$), 부의 학력($P<.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말하도록 격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C_5 (부모의 방문을 환영함) 기준은 월수입($P<.01$)에서 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월수입이 151만원 이상인 경우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보육시설은 언제라도 부모의 방문을 환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C_6 (부모-교사 회의) 기준은 월수입($P<.01$), 모의 직업유무($P<.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4) 교육과정(D) 영역

교육과정 영역에 대한 인식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모의 학력($P<.001$), 부의 학력($P<.001$), 취업모의 취업시기($P<.001$), 가족수($P<.01$), 가족형태($P<.01$), 부의 연령($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 영역별로 보면, D_1 (프로그램 목적이 반영된 교육활동) 기준에서는 부의 학력($P<.001$), 모의 학력($P<.01$), 월수입($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월수입이 151만원 이상인 경우가 101~150만원인 경우보다,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가 고졸이거나 중졸 이하인 경우보다 교육 활동은 프로그램의 목적을 반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D_2 (아동들의 흥미에 따른 활동계획수립) 기준에서는 가족수($P<.001$), 모의 학력($P<.001$), 부의 학력($P<.001$), 취업모의 취업시기($P<.001$), 결혼지속년수($P<.01$), 가족형태($P<.01$), 부의 연령($P<.05$)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다른 기준에서보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D_3 (특별한 요구가 있는 아동을 위한 배려) 기준에서는 모의 학력($P<.001$), 부의 연령($P<.01$), 가족수($P<.01$), 가족형태($P<.01$), 부의 학력($P<.01$), 취업모의 취업시기($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D_4 (균형있는 일일 계획표 구성) 기준에서는 모의 학력($P<.05$)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일일 계획표는 여러가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계획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D_5 (아동의 활동선택에 있어서의 자율성) 기준에서는 모의 학력($P<.001$), 부의 학력($P<.001$), 취업모의 취업시기($P<.01$), 가족형태($P<.05$)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D_6 (아동의 활동 참여에 대한 자율성) 기준에서는 모의 학력($P<.001$), 가족수($P<.01$), 가족형태($P<.01$), 취업모의 취업시기($P<.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중 특히 핵가족이 확대가족보다, 또한 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일수록 아동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점과 아동들은 어떤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

(5) 교사진(E) 영역

교사진 영역의 인식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모의 학력($P<.001$), 부의 학력($P<.001$), 결혼지속년수($P<.01$), 월수입($P<.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 영역별로 보면, E_1 (한 집단내의 아동수) 기준에서는 모의 학력($P<.001$), 부의 학력($P<.01$), 취업모의 취업시기($P<.05$)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E_2 (융통성있는 집단의 크기) 기준은 모의 학력($P<.001$), 부의 학력($P<.001$), 월수입($P<.01$), 취업모의 취업시기($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_3 (즉시 보살피기에 충분한 수의 교사확보) 기준은 모의 학력($P<.001$), 자녀수($P<.01$), 결혼지속년수($P<.05$), 월수입($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E_4 (아동은 항상 교사의 보호하에 있어야 함), E_5 (개별적 접촉에 충분한 수의 교사확보), E_6 (아동 집단에 대한 교직원의 책임) 기준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도 보이지 않아 이들 기준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상관없이 인식되는 영역으로 사료된다.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교육과정(D 영역)

변인	구분		D ₁		D ₂		D ₃		D ₄		D ₅		D ₆		D ₇		
	M	F값	M	Scheffe	M	Scheffe	M	Scheffe	M	Scheffe	M	Scheffe	M	Scheffe	M	Scheffe	
부의 연령	34세 이하	2.60	1.18	2.63	4.12*	2.59	7.35**	2.83	.91	2.63	.14	2.21	.24				
	35세 이후	2.67		2.54		2.44		2.79		2.62		2.18					
	F값																
가족수	3명 이하	2.69	.06	2.69	6.43***	2.62	5.58**	2.79	.82	2.66	3.03	2.26	.a				
	4명	2.69		2.59		2.52		2.84		2.65		2.20					
	5명 이상	2.71		2.40		2.35		2.80		2.48		2.01					
결혼지속연수	5년 이하	2.66	1.17	2.67	5.16**	2.58	2.05	2.84	1.33	2.67	1.23	2.16					
	6-7년	2.62		2.61		2.52		2.82		2.57		2.27					
	8년 이상	2.55		2.46		2.44		2.76		2.57		2.11					
가족형태	핵가족	2.68	.71	2.62	6.21**	2.56	8.73**	2.81	.15	2.65	3.75*	2.22					
	확대가족	2.74		2.44		2.34		2.83		2.51		2.02					
	F값																
모의 학력	중졸 이하	2.54	6.14**	2.36	11.25***	2.38	7.30***	2.73	3.45*	2.44	8.65***	2.11	.a				
	고졸	2.66		2.54		2.47		2.79		2.58		2.11					
	대졸 이상	2.81		2.76		2.67		2.88		2.76		2.11					
부의 학력	중졸 이하	2.42	8.67***	2.35	11.81***	2.35	4.91**	2.73	.90	2.46	6.76**	2.15					
	고졸	2.63		2.49		2.46		2.80		2.56		2.14					
	대졸 이상	2.79		2.73		2.61		2.84		2.73		2.24					
월수입	1.00만원 이하	2.68	3.21*	2.60	.37	2.50	.25	2.77	2.31	2.63	1.95	2.16					
	1.01-1.50만원	2.64		2.54		2.52		2.81		2.63		2.18					
	1.51만원 이상	2.80		2.54		2.55		2.88		2.71		2.26					
취업모의 취업시기	출산전	2.74	.54	2.71	7.50***	2.65		2.87	1.22	2.73	4.04**	2.30					
	출산후 1-3년	2.74		2.49		2.37		2.85		2.55		2.02					
	출산후 4년 이후	2.65		2.33		2.44		2.79		2.48		2.10					

Scheffe : 서로 다른 문자간에는 유의차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교사인(E 영역)

변인	구분		E ₁		E ₂		E ₃		E ₄		E ₅		E ₆		E ₇		
	M	F값	M	Scheffe	M	Scheffe	M	Scheffe	M	Scheffe	M	Scheffe	M	Scheffe	M	Scheffe	
결혼지속연수	5년 이하	2.81	1.33	2.64	1.20	2.69	1.45	2.77	2.08	2.81	3.37*	2.75	.81				
	6-7년	2.78		2.58		2.69		2.81		2.73		2.73					
	8년 이상	2.73		2.54		2.60		2.71		2.68		2.68					
자녀수	1명	2.57	.24	2.57	.24	2.64	.28	2.76	1.26	2.76	4.10**	2.69	.a				
	2명	2.61		2.61		2.68		2.79		2.76		2.75					
	3명 이상	2.59		2.59		2.64		2.64		2.64		2.68					
모의 학력	중졸 이하	2.56	7.56***	2.46	7.68***	2.73	2.09	2.69	2.39	2.69	6.57***	2.63	.a				
	고졸	2.77		2.53		2.72		2.75		2.83		2.72					
	대졸 이상	2.86		2.73		2.72		2.84		2.84		2.77					
부의 학력	중졸 이하	2.59	5.61**	2.30	8.27***	2.63	1.72	2.81	1.52	2.81	2.21	2.56					
	고졸	2.74		2.52		2.62		2.72		2.72		2.74					
	대졸 이상	2.85		2.69		2.71		2.80		2.80		2.73					
월수입	1.00만원 이하	2.77	.28	2.48	5.98***	2.61	1.58	2.76	2.09	2.76	3.55*	2.70	.a				
	1.01-1.50만원	2.76		2.68		2.68		2.73		2.73		2.75					
	1.51만원 이상	2.80		2.69		2.69		2.84		2.85		2.85					
취업모의 취업시기	출산전	2.74	3.54*	2.74	6.18**	2.68	.24	2.88	.36	2.70	.17	2.72					
	출산후 1-3년	2.83		2.42		2.66		2.66		2.66		2.71					
	출산후 4년 이후	2.67		2.59		2.61		2.61		2.61		2.76					

Scheffe : 서로 다른 문자간에는 유의차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6) 물리적 환경(F) 영역

물리적 환경 영역의 인식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모의 학력(P<.001), 부의 연령(P<.01), 결혼지속년수(P<.01), 자녀수(P<.01), 부의 학력(P<.01), 취업모의 취업시기(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 영역별로 보면, F₁(실내·외 환경이 좋을 것) 기준은 모의 학력(P<.001)과 부의 학력(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₂(효율적인 공간 배열) 기준은 모의 학력(P<.01), 부의 학력(P<.01), 월수입(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가 고졸인 경우보다 월수입이 101~150만원인 경우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공간은 아동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소그룹, 대그룹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배열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F₃(소유물 보관할 개인공간 필요) 기준은 월수입(P<.01), 부의 연령(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₄(아동이 쉴 수 있는 개인공간 필요) 기준은 결혼지속년수(P<.001), 모의 학력(P<.001), 취업모의 취업시기(P<.001), 부의 연령(P<.01), 자녀수(P<.01), 부의 학력(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F₅(부드러운 특성의 소품 제공) 기준은 모의 학력(P<.001), 부의 연령(P<.01), 결혼지속년수(P<.01), 자녀수(P<.01), 취업모의 취업시기(P<.01), 부의 학력(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₄기준과 F₅기준은 다른 기준에서 보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F₆(실외 영역을 다양하게 꾸밈) 기준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7) 영양공급, 건강과 안전(G) 영역

영양공급, 건강과 안전 영역에 대한 인식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한 결과<표 9>와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모의 학력(P<.001), 부의 학력(P<.01), 월수입(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하위 영역별로 보면, G₁(일과 종료 후 아동책임자 동반귀가) 기준과 G₃(물, 화장실 등이 아동 주변에 있을 것) 기준에서는 각각 월수입(P<.05)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G₄(부모에게 식단 공개) 기준은 모의 학력(P<.001), 부의 학력(P<.001), 월수입(P<.001), 부의 연령(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일수록, 월수입이 많을수록 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식사내용을 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G₅(혼자 식사하도록 격려함) 기준은 모의 학력(P<.01), 월수입(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G₆(다양한 음식제공) 기준에서는 자녀수(P<.001), 월수입(P<.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자녀수가 1명이거나 2명인 경우가 3명 이상인 경우보다, 월수입이 101~150만원인 경우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아동들에게 다양한 음식들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G₂(아동 학대 의혹시 관계기관에 보고) 기준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4. 보육시설의 질적 기준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보육시설의 질적 기준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도의 각 영역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면 변인만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즉 교직원의 자격(A)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의 학력(P<.05)으로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직원의 자격을 더 중요하게 지각하였으며 설명력은 약 3%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영-평가(B)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의 학력(P<.001)과 자녀수(P<.05)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보육시설의 경영-평가 측면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설명력은 5%

(표 8)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물리적 환경(F 영역)

변인	구분		F ₁		F ₂		F ₃		F ₄		F ₅		F ₆	
	M	Std	M	Std	M	Std	M	Std	M	Std	M	Std	M	Std
부의 연령	34세 이전	305	2.67	8.59**	2.83	2.80	2.73	4.78*	2.43	2.45	2.51	5.78**	2.76	.03
	35세 이후	241	2.58		2.80	2.69	2.63		2.73	2.36	2.75		2.75	
결혼지속년수	5년 이하	194	2.69	5.66**	2.84	2.79	2.71	.57	2.48	2.54	2.55	5.13**	2.76	.10
	6-7년	188	2.63		2.80	2.74	2.67		2.42	2.42	2.42		2.74	
자녀수	8년 이상	95	2.56		2.79	2.63	2.65		2.50	2.50	2.50		2.75	
	1명	217	2.65	4.01**	2.83	2.78	2.72	.40	2.43	2.43	2.50	5.51**	2.76	3.09
모의 학력	3명 이상	28	2.46		2.78	2.71	2.59		2.43	2.43	2.04		2.77	
	중졸 이하	55	2.53		2.62	2.64	2.74	.40	2.33	2.33	2.04		2.50	
부의 학력	고졸	319	2.60	7.27***	2.82	2.82	2.67	.50	2.27	2.27	2.18	7.13***	2.60	2.48
	대졸 이상	185	2.70		2.86	2.82	2.70		2.51	2.51	2.57		2.77	2.76
부의 학력	중졸 이하	26	2.53	4.84**	2.62	2.85	2.67	.99	2.42	2.42	2.15	4.80**	2.67	.40
	고졸	268	2.59		2.81	2.76	2.65		2.27	2.27	2.38		2.76	
월수입	10.0만원 이하	223	2.60	2.32	2.80	2.79	2.51		2.42	2.42	2.38	4.80**	2.76	.40
	10.1-15.0만원	218	2.63		2.83	2.73	2.73		2.31	2.31	2.38		2.76	
취업모의 취업시기	1.51만원 이상	115	2.69		2.79	2.73	4.20**		2.48	2.48	2.55		2.78	1.08
	출산전	159	2.69	3.90*	2.83	2.84	2.74	1.04	2.52	2.52	2.56	4.39**	2.73	.22
취업모의 취업시기	출산후 1-3년	53	2.60		2.83	2.81	2.81		2.12	2.12	2.38		2.74	
	출산후 4년 이후	49	2.55		2.84	2.75	2.67		2.06	2.06	2.24		2.67	

Scheffe : 서로 다른 문자간에는 유의차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영양공급, 건강과 안전(G 영역)

변인	구분		G ₁		G ₂		G ₃		G ₄		G ₅		G ₆		
	M	Std	M	Std	M	Std	M	Std	M	Std	M	Std	M	Std	
부의 연령	34세 이전	305	2.68	2.69	2.52	2.46	2.54	1.25	2.77	2.82	2.80	2.50	6.68**	2.85	1.02
	35세 이후	243	2.64		2.46	2.51	2.51	.27	2.47	2.47	2.85		2.85		
자녀수	2명	219	2.67	.17	2.51	2.46	2.58	.26	2.81	2.81	2.44	.61	2.93	2.84	
	3명 이상	319	2.63		2.41	2.41	2.56	1.51	2.74	2.74	2.51		2.85	9.50***	
모의 학력	중졸 이하	55	2.63	7.55***	2.53	2.57	2.45	.84	2.71	2.71	2.38	10.37***	2.80	2.80	
	고졸	320	2.63		2.43	2.44	2.52		2.85	2.85	2.61		2.81	2.86	
부의 학력	중졸 이하	27	2.59	2.56**	2.30	2.48	2.37	1.38	2.74	2.74	2.33	10.88***	2.93	2.85	
	고졸	269	2.63		2.48	2.52	2.49	2.10	2.82	2.82	2.33		2.81	2.83	
월수입	10.0만원 이하	222	2.62	5.89**	2.52	2.59	2.52	1.85	2.76	2.76	2.33	7.69***	2.79	5.38**	
	10.1-15.0만원	219	2.66		2.49	2.49	2.59		2.81	2.81	2.57		2.81	2.81	
취업모의 취업시기	1.51만원 이상	115	2.75		2.59	2.59	1.85		2.89	2.89	2.54		2.86	2.88	
	출산후 4년 이후	49	2.55		2.84	2.75	2.67		2.75	2.75	2.24		2.67	2.67	

Scheffe : 서로 다른 문자간에는 유의차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보육시설의 질적 기준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인	종속변인	교직원 자격(A)	경영-평가(B)	교직원-부모/교직원-아동의 상호작용(C)	교육과정(D)	교사진(E)	물리적 환경(F)	영양공급, 건강과 안전(G)
		B(β)	B(β)	B(β)	B(β)	B(β)	B(β)	B(β)
모의 학력		.0778(.1811)*	.1151(.2053)***	.0712(.1478)***	.1158(.2258)***	.0764(.1555)***	.0804(.1600)**	.0782(.1507)***
자녀수			-.0619(-.0598)*	7.137363E-04(.129218)**				
월수입								
취업모의 취업시기								
결혼지속년수								
constant		2.4969	2.3053	2.3266	2.3927	2.5475	2.4843	2.4095
adjusted R ²		.0286	.0548	.0480	.0928	.0365	.0427	.0209
F		7.8026**	16.2950***	14.8020***	13.2276***	10.9012***	6.1942**	12.5765***

* P < .05 ** P < .01 *** P < .001

로 나타났다. 교직원-부모/교직원-아동의 상호작용(C) 영역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5%로 나타났으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의 학력(P<.001)과 월수입(P<.01)으로서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의 월소득이 많을수록 교직원-부모/교직원-아동의 상호작용을 더 중요하게 지각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교육과정(D) 영역을 설명하는 정도는 9%로 나타났으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의 학력(P<.001)과 취업모의 취업시기(P<.01)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모인 경우 취업을 한 지 오래되었을수록 교육활동 및 교육과정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교사진(E) 영역과 물리적 환경(F) 영역을 설명하는 정도는 각각 4%로 나타났으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두 영역 모두 모의 학력(P<.001, P<.01)과 결혼지속년수(P<.01, P<.05)로 나타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지속년수가 낮을수록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포함한 교사진 영역과 공간구성 및 교구를 비롯한 물리적 환경을 더 중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영양공급, 건강과 안전(G) 영역을 설명하는 정도는 2%로 나타났으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의 학력(P<.001)으로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영양공급, 건강과 안전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육시설의 질적 기준 중 교육과정, 경영-평가 기준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정도가 상대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 보육시설의 질적 기준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7개 기준 영역 중 집단의 크기 및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의미하는 교사진 영역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진 영역을 세부적으로 보아도 E₁(한 집단내의 아동수), E₄(개별적 접촉에 충

분한 수의 교사 확보), E_5 (즉시 보살피기에 충분한 수의 교사 확보)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중시하고 있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이영, 김미령, 1990; 강숙현 역, 1989)에서 낮은 비율을 강조하고 있으며 NAEYC에서도 연령에 따른 적절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95년도 보육사업지침의 내용중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를 3세미만인 경우 7명 기준인 것을 2세미만은 5명, 2세는 7명으로 세분화시킨 반면, 3세 이상인 경우의 기준이 15명에서 20명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여기에서 두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NAEYC의 기준에서는 3세 이상의 경우도 3세에서 5세까지는 1 : 10, 6세에서 8세까지는 1 : 12로 세분화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3세 이상의 아동을 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3세 이상의 경우에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이는 NAEYC의 기준의 거의 2배에 해당되며 '94년도 기준보다 오히려 높아진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집단의 크기와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사회적 지식이나 행동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집단의 크기가 크면 아동은 반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일 뿐만 아니라 방관적인 놀이를 많이 하여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Clark-Stewart & Fein, 1983).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지침에 따른 기준에서 3세 이상의 경우에 대한 사항은 재고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된다. 또한 교직원-부모/교직원-아동의 상호작용 영역의 경우 C_1 (아동과 잦은 상호작용)과 C_4 (아동을 격려함) 기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 교직원은 미소짓기, 안아주기, 접촉하기, 말걸기 등과 같이 아동과 자주 상호작용하고, 아동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말하도록 격려하며 모든 아동을 동등하게 대하고 존중감을 갖고 사랑으로 이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직원의 자격 영역에 있어서는 A_2 (유아교육 전공) 기준과 A_3 (정규적 교육) 기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책임자는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사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규적인 교육기회를 가

져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질 높은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을 아동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사회적 안정감을 부여하여 자격있는 양질의 자원이 보육서비스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수 교사 확보와 함께 기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로 이들에 대한 자질향상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계획적인 재교육이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 및 처우의 미흡으로 인해 질 높고 우수한 보육종사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양성기간 중 교육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육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성 교육과정의 훈련기간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재교육의 교육과정도 보육교사의 경력이나 요구도에 따라 내용을 조정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연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보육교사양성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것이 현장실습 경험이므로 현장실습 경험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 영역의 경우 D_4 (균형있는 일일계획표 구성) 기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일일계획표는 아동이 여러가지 활동, 즉 실내/실외활동, 정적/동적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계획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물리적 환경 영역에 있어서는 F_1 (실내·외 환경이 좋을 것), F_6 (실외 영역을 다양하게 꾸밈)의 순으로 나타나 실내·외 환경이 안전하고 깨끗하며, 매력적이고 넓어야 하며, 특히 실외 영역에는 잔디, 모래, 포장한 바닥 등 다양한 바닥마감을 하고 타는 장난감이나 올라갈 수 있는 구조물 등 여러가지 기구들을 비치하여 아동들이 마음껏 활동함으로써 에너지를 방출하고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보육시설의 질적 기준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에 있어서 7개의 모든 영역이 부모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부모 뿐만 아니라 예비부모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 연령의 이해수준에 맞는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교육을 점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더우기 급격한 사회의 변화로 인해 가족의 기능이 변화하고 있고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부모를 모델링할 기회가 현저하게 부족하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도 많아지고 있으며, 보육서비스의 기능 중에도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편 이윤희(1993)에 의하면 보육시설에서의 부모교육은 18.3%의 시설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부모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유로는 부모의 시간부족, 부모의 관심부족, 강사초빙문제, 재정문제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에서의 부모교육 실시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으며 제대로 행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우기 지금까지 실시되어 오고 있는 부모교육은 그 명칭이 부모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주교육 대상자는 주부인 어머니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학력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도 보육시설의 질적 기준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알 수 있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중 어머니의 학력 다음으로 중요한 변인이었다.

따라서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한 강연회, 면담, 참관, 가정통신 등과 같은 부모교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 가정방문 프로그램, 장난감 도서관 프로그램, 교사-보호자 프로그램 등의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모의 역할과 기능은 가족의 문화적 가치나 배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의 정도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부모교육에 대한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하는 것 또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경우도 국외의 것을 참고한 것으로, 예를 들어 C 영역인 교직원-부모/교직원-아동의 상호작용이 하나의 영역으로 묶여져 있으나 실제로는 두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보육사업은 부모의 요구에서 벗어나 아동의 요구로의 전환 즉 아동중심적인 생각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숙현 역, 발달적으로 적합한 유아교육실제, 전남대학교 출판부, 1989.
- 2) 보육사업지침, 보건복지부, 1995.
- 3) 이 영, 김미령, 발달적 접근방법에 의한 종일제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서울:양서원, 1990.
- 4) 이윤희, "민간 보육시설의 운영실제와 개선방안", 우리아이·우리엄마 제6호,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1993.
- 5) Bogat, A. G. & Gensheimer, L. K., Discrepancies between the attitudes and actions of parents choosing day care, 15, 1986, pp. 159~169.
- 6) Clare-Stewart, K.A., Fein, G.C., Early childhood programs. In M.M. Haith & J.J. Campos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2. Infancy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4th ed., pp. 917-999). New York:Wiley, 1983.
- 7) Esinosa, L., An ecological study of family day car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1980.
- 8) Fuqua, R. W. and Labensohn, D., Parents as consumers of Child Care, Family Relation, 35, 1986, pp. 295~303.
- 9) Golson, N. G., An assessment of the Criteria parents seek in initial selection of a Child care center,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1977, p. 38.
- 10) Johnson, J. E, Ershler, J, & Bell, C., Play

- behavior in a discovery-based and a formal-education, 1980.
- 11) Miller, L. B, & Dyer, J. L., Four preschool program : Their dimensions and effect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0, 1975, pp. 5~6 (Serial No.162).
 - 12) Phillips, D, McCarthey, K, Scarr, S., & Howes, C., Selective review of infant day care research : A cause for concern! Zero to Three, 7, 1987, pp. 18~21.
 - 13) Stroud, J. C. , Parent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Selected quality Criteria when choosing child care. Dotoral Dissertation, Indiana State University, 1988.
 - 14) Turner, P. H, and Smith, R. M., Single Parents and day care, Family Relations, 32, 1983, pp. 215~226.
 - 15) Vandell, D.L., Henderson, V.K., & Wilson, K.S., A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 with day care experiences of varying quality, Child Development, 59, 1988, pp. 1286-1292.